

예당에너지, 러시아 유전 2단계 시추 착수

세고(대표 김홍섭) 계열사 예당에너지가 러시아 유전에 대한 2단계 시추작업에 착수했다고 5월20일 발표했다.

러시아 빈카를 통해 러시아 생산유전을 인수한 예당에너지는 “5월9일 2단계 시추개발비를 빈카에 지급했으며 현재 시추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와 시추장비설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8/05/21>